

내가 뽑은 페미니즘 도서, 그 '최고와 최악'

각계 9인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의 책

여성만도, 남성만도 아닌 양성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책 속에서 반페미니즘적 요소를 찾기는 쉽다. 그동안 횡행한 성차별의 역사가 너무 길었던 탓이다. 각계 9인이 페미니즘을 잣대로 최고와 최악의 책을 뽑았다.

최고의 책 가운데 중복된 답변은 없었지만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일치한다. 정신이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목소리와 육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 반면 얼마전 논란이 됐던 이문열의 《선택》은 여러 명에게 최악의 책으로 꼽혔다. 성적 불평등이 전제된 가부장사회에서의 '자율적 선택'이란 또다른 성적 억압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이었다. (계재는 원고도착순)



여성 안에 숨어 있는 탁월한 재질

·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이해》

사랑은 구걸이 아니다

· 최영미의 《꿈의 페달을 밟고》

김정란

상지대 교수 · 시인

페미니즘 도서는 대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해결책도 우리에게도 권력을 나눠 달라는 것으로 난다. 하지만 《사랑의 이해》는 남성들이 개발시켜온 근대성을 넘어서는 탁월한 재질이 여성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

기서의 여성성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상징되는, 스스로 새로운 자아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영성으로서의 여성성이다.

이에 비해 《꿈의 페달을 밟고》에 드러난 여성성은 위협하기 짝이 없다. 논란이 됐던 이문열의 《선택》은 스스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덜 위협하다. 성에 관해 단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성을 고양, 발현시키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쾌락의 도구로서 여성의 이차적이고 열등한 위치를 더욱 고착시키는 일일 뿐이다. 사랑은 구걸이 아니다. ❖

살아 있는 체험 우러난 육성

· 오숙희의 《딸들에게 희망을》

페미니즘에 철저한 무지 드러내

· 이문열의 《선택》

변정수

미디어평론가

페미니즘을 다루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 내용에 따라 그 나름의 효용이 있을 터이기에, 그 우열을 논하지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페미니즘이란 이념적 지향 이전에 존재론'이라는 나의 주체념은 판단으로 보자면 깊이 있는 지식을 전개하거나 확고한 이념적 전망을 역설하는 책보다는, 아무래도 살아 있는 체험에서 우러난 육성을 대중에게 친숙한 필치로 전달하는 데 가히 독보적인 오숙희의 저작들에 눈이 머물 수밖에 없다. 그의 저서로는 이외에도 《그래, 수다로 풀자》, 《너무 가까운 여자》 등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을 최악의 책으로 꼽는 데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책의 가치(?)는 단지 페미니즘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있지만은 않다. 오히려 그보다 페미니즘에 대한 철저한 무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즉 작가가 공격하고 비방해 마지않는 페미니즘은 작가의 머리 속이나 가공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에 실재하는 페미니즘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것이다. 무릇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법이다. ❖

억압적 사회구조 냉정히 분석

· 조혜정의 《한국의 여성과 남성》

현대 덕목의 전근대적 적용

· 이문열의 《선택》

이진우

계명대 교수 · 철학

무크 《또하나의문화》는 한국 여성운동에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책이지만 그 내용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성과 남성》을 최고의 책으로 꼽는다. 이 책은 극단의 치우치지 않은 시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선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선택》의 작가는 여성을 가두는 억압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삶을 자율적으로 일궈나가는 현대적 덕목 '선택'을 전근대 사회에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과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자아확장의 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기만이다. 게다가 그것을 또다른 페미니즘의 길로 오도하고 있다. ❖

남성의 입에서 쏟아내는 역설

· 게르트 브란트베르크의 《이갈리아의 딸들》

이항대립 속에 가둬 왜곡

·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변재란

영화평론가

역사는 남성들의 영웅담으로 꼭 차 있었다. 그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도움이 되었나 안되었나로 그 역할이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갈리아의 딸들》은 유토피아 이야기의 틀을 빌려 이 둘의 역할을 교묘하게 바꿔놓았다. 그러나 단지 역할바꾸기에 그쳤다면, 헤프닝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외, 상처 등 웃을 수 없는 진실까지 드러난다. 무엇보다 현실 속 여성들의 항의와 분노가 남성의 입에서 쏟아져나온다는 역설이 통쾌하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됐던 《경마장 가는 길》에 드러난 여성관은 소외 배웠다는 지식인 남성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자전적 이야기와 허구를 교묘하게 섞으면서, 여성들을 문명/자연, 동물/인간이라는 이항대립 속에 가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함께 유학했던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논문대필, 이기적으로 해석된 성관계 경험 등을 통해 여

성들의 모습을 단단히 왜곡하고 있다. ❖

무기력의 심리적 원인 파악

· 그리스판의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여성을 자책하게 만드는 책

· 아키히로의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박미라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장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 세상에 대한 분노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은 이런 억압에 길들여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이나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는 모두 여성들의 이런 심리를 건드린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문제가 결국 무기력이나 자학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관계의 병적인 면이 개인에 투사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는 30대 여성들에게 일부러 할 일을 찾아야만 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성 자신을 더욱 자책하게 한다. 실제 우리 사회의 30대 기혼여성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이 책의 제목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된 자신을 찾기 위해 30대 여성들이 포기해야만 할 50가지”로. ❖

세상을 풍자하는 여성의 시각

· 로슈포르의 《병사의 휴식》

‘성녀’ 혹은 ‘창녀’로 내모는 비극

· 모든 남성작가들이 쓴 그 끔찍한 연애소설들

차현숙

소설가

《병사의 휴식》은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은 아니다. 부르주아에 대한 풍자, 지식인의 허구성을 폭로한 소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폭로와 풍자가 여성화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제까지 세상에 대해 주도적으로 발언해 온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었다. 여성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여성세계의 대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발견’이다. 이에 비해 남성작가들이 쓴 연

애소설은 대부분 여성을 성녀가 아니면 창녀로밖에 보지 않는 무지한 시각을 드러낸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이 아닌 성녀 혹은 창녀에 머물 때, 여성은 오해되고, 왜곡되고, 신비화된다. 모든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기서 비롯된다. 최악의 책으로 꼽을 수 있는 책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나로서는 비극이다. ❖

당당한 여성의 자기다움 표현

· 이윤희의 《익명적 사랑》

아이가 징징거리는 듯한 느낌

· 여성작가들이 쓴 몇몇 소설

김정일

신경정신과 전문의

페미니즘이라면 여성이 사회에서 독자적인 성인다운 역할을 하고 나아감을 말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익명적 사랑》은 당당한 한 여성의 자기다움을 잘 표현했다. 권태로운 일상, 사랑의 추구, 자기 일의 발견, 비현실적인 사랑의 처리,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과 자긍심, 자기 실현과 먼 미래의 꿈에 대한 추구 등의 시각이 적절했다고 보인다.

반면 여성주의의 시각을 지닌 채하면서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여성작가들의 소설을 최악으로 꼽는다. 바람난 남편, 이상적인 남성과의 외도, 어린 시절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등을 주요 소재로 하는 소설들을 보면 어떤 것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보다 병적으로 방황하는 흐트러진 모습만이 눈에 띈다. 성숙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여성작가들의 방황이 안타깝다. ❖

사회문제로 확대한 ‘들끓는 텍스트’

·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몸과 정신이 없는 ‘팅빈 텍스트’

· 송기원의 《여자에 관한 명상》

신수정

문학평론가

《해산바가지》가 ‘들끓는 텍스트’라면 《여자에 관한 명상》은 ‘팅빈 텍스트’다. 여성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육체가 살아 있느냐를 물으면 이런 구

분은 한눈에 드러나 버린다. 《해산바가지》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생명에 대한 고양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가족이라는 익숙한 관계, 그 안에서 고부관계라는 ‘현실’을 통해 이야기한다. 두 사람의 연대는 단순히 여성연대로 끝나지 않고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와의 연계까지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송기원의 책에서 여성은 살아숨쉬는 인간으로서가 아닌 추상적·대상화된 존재로 등장한다. 제 아무리 치열한 정신을 가진 남성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발전이고, 테마며, 드라마다. 여성의 구체적인 목소리나 육체, 드라마는 《여자에 관한 명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여성이 몸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작가들은 종종 잊는 것 같다. ❖

옛 여성들의 자유로운 정신

· 신사임당 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또다른 성적 억압 속에 기쁨

· 이문열·마광수의 책

정대현

이화여대 교수·철학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가 포착한 우리 옛 여성들의 정신은 현재의 페미니스트들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준다. 그들은 비록 현실에서는 성적 불평등을 음양원리에 의한 우주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마치 불평등한 체제에 군소리 없이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학의 상상 속에서는 결코 기죽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평등하며, 남성들을 마음껏 놀린다.

여성주의에 대한 또다른 관점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이문열의 《선택》이나 마광수의 책들은 과거 여성들의 자유로움조차 따라잡지 못한다. 이들의 책은 문학 속에서 맘껏 날아다닌 여성을 또 다른 성적 억압 속에 가두고 있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 작품 속의 세계로 숨어들기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진지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 ❖

— 정리·이현주 기자

